

문 19: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비참한 것이 무엇인가?

답 19: 모든 인종이 타락함을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또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어서 생전에 모든 비참함과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게 되었다.

성경적 근거: 창세기 3:8, 10, 24; 에베소서 2:3; 로마서 5:14, 6:23; 마가복음 9:47-48; 갈라디아서 3:10; 마태복음 25:41

질문 1: 인간의 전적타락의 결과로 하나님과의 무엇이 끊어졌는가?

질문 2: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끊어진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왜 그런가?

질문 2: 인간의 전적타락의 결과로 무엇이 인간을 지배하게 되었는가?

질문 3: 인간의 전적타락의 결과로 인간은 생전에 무슨 체험을 하게 되었는가?

질문 4: 인간의 전적타락의 결과로 인간은 어떤 벌을 받게 되었는가?

질문 5: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인가?

질문 6: 하나님의 저주는 무엇인가?

질문 7: 지옥은 어떤 곳인가?

질문 8: 왜 타락은 비참한 것인가?

질문 9: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설명:

이미 우리는 죄로인한 인간의 전적타락에 대해 공부했다. 그러나 여기서는 전적타락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사람은 모든 것을 자신의 입장에서 보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전적타락이 우리에게 가져온 결과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견해를 통해 그것의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

인간의 전적타락은 인간이 좋은 곳에서 편하고 즐겁게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낙원에서 쫓겨나 불편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만 결론을 내린다면 우리는 진정한 전적타락 (또는 전적부패)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낙원이 좋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좋은 환경 때문이었는가?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에덴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동거하였던 곳이다. 그래서 낙원이 좋았던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은 죄로인해 하나님으로 부터 숨어야 되는 행동을 처음으로 하게 되는 것이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낫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창세기 3:8)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의 낫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자. 이 말씀속에 있는 몇가지의 상황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는데 그 음성은 전에 들었던 음성과는 전혀다르게 들렸다. 둘째, 그렇게 반갑던 하나님의 낯을 아담과 하와는 이제 하나님의 낯을 (또는 임재를) 피하려고 했다. 셋째,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모습을 동산 나무 사이에 감추려고 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에덴 동산의 상황이 상당히 바뀐것을 느낄수 있다. 정겹던 음성이 나를 두렵게하고 또 반갑던 얼굴을 볼 수 없게되고 마지막에는 내 자신을 숨겨야 되는 비참함을 우리는 엿볼수있다. 인생을 살다보면 이런 경우를 당할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를 즐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상황을 한번 바꿔보자. 만약 나를 낳으신 어머니의 음성이 듣기 싫어지고 그의 얼굴이 보기 싫어진다면 얼마나 그 상황이 악화된 상황인지는 구태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것이다. 그리고 어머니의 얼굴을 볼 수 없어서 내가 숨어야 된다면 사실 상황은 비참하기 그지 없는 것이다.

이미 공부한바와 같이 하나님은 사랑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우주를 창조하시고 옛세동안 정성스럽게 우주만물을 단장하시고 특별히 꿈에서만 상상할 수 있는 에덴동산을 지으셨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으시는 동안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함께 즐길수 있는 사람을 마음에 두시고 계셨던 것이다. 왜냐하면 에덴은 사람을 위해 지으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설레는 마음으로 흠을 빚고 다지며 또 쓰다듬으시고 그 사람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부비시면서 만들어진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그 사람은 생명이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자유롭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즐기고, 먹고, 가꾸고, 다스리게 하셨다.

그러나 창세기 3:8 의 말씀은 본래의 그림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다.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 하나님에게 아담이 첫 사랑이었고 또한 아담에게 하나님은 첫 사랑이었다. 그런데 아담은 그의 첫 사랑을 잊어버리게 된것이다. 첫 사랑의 음성을 듣지도, 그의 얼굴을 보지도 못한다면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의 첫 사랑인 사람을 잊지 않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 사람을 구원하게 하신 것이다.

솔직히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는 것은하나님을 정말 모욕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른 것이다. 나무 사이에 숨는다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보지 못하지 않는다. 불꽃같은 눈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관찰하시기에 아무도 그의 눈에서 숨을 재간이 없음에도 사람들은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할때가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과는 아무관계가 없는 상황으로 변했던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완전하 금이 간 것이다. 이것이 타락의 결과이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데에 있다. 그 관계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회복될 수 없고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아담과 하와는 사실 건넌 것이다. 이런 상태를 영적죽음이라고 칭한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사람이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큰 것 만큼 그의 진노와 저주역시 엄청난 것이다. 영적죽음의 결과로 사람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육신의 비참함을 체험하게 되었고 육신의 죽음을 통해 영원히 지옥의 벌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사이에 일어났던 사건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것보다 더 큰 사건은 없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제외하고는 인류역사상 원죄 사건의 규모에 가까이 비교될만한 것은 없다.

인간의 전적타락 (전적부패)로 인해 인간은 이제 진노와 저주의 지배를 받게된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다스려야 할 자연 (즉, 나무)을 의지해야되는 연약한 자들이 되게 된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는 것은 자신들의 위치를 지키지 못했음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감정이 격하여져서 울컥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다. 그럼 하나님의 진노는 과연 어떤것인가? 여기서 깊이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로마서를 통해 살펴본다.

로마서 1:18 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좇아 나타나나니”라고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의 진노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데 로마서 1 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24 절에서 26 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라고 표현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포기해 버렸었을까? 하나님의 진노는 이와 같다. 사람도 모든 사람들로 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이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다. 내가 아무리 어렵고 아파서 고함을 질러보지만 아무도 들은척하지 않는다면 정말 비참할 것이다. 그래서 관계는 소중한것이다. 그래서 관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관계를 소홀히 하게되면 언젠가 자신도 소홀히 당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긴 아담과 하와는 결국 비참함을 피할 방법이 없었다.

하나님의 저주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완전히 파괴되었거나 망했음을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는 함께가는 것이다.

영원한 지옥의 벌이라는 표현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영원한 지옥의 벌은 이 땅에서의 비참함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참혹한것이다.

사람들은 천국이 있음을 말하기는 좋아해도 지옥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지옥은 존재한다고 분명히 기록되어있다. 지옥에 관한 다음의 성경구절들을 찾아 읽어보라마 5:22, 29, 30, 10:28, 18:9, 23:15, 23:33;

막 9:43, 9:45, 47;

눅 12:5, 16:23,

약 3:6;

벧후 2:4.

마지막 한 질문을 던지고 싶다.

추가질문 10: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계 20:14-15)